

## ■ 2024년도 하반기 소설가의방 입주작가 지원심의 총평

- 사업명 : 2024년도 하반기 소설가의방 입주작가 지원심의
- 회의일시 : 2024년 6월 14일(금), 14:00~15:10
- 회의방법 : 영상회의

사람이 세계를 감각하는 방식은 모두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이 위치한 바로 그 자리, 발밑을 떠받치고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세계를 인지하기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구체적으로 발화하는 시점에서부터 세계를 지각할지 모른다. 또 다른 누군가는 모종의 추상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듯 경증경증 구상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계와 맞닥뜨릴 수도 있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든 그들이 감각하는 세계는 진중하고 다채로우며 더없이 현실적이다. 동시에 가변적이어서 잠깐 몸을 돌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전혀 다른 층위에 놓이기도 한다.

소설가는 이처럼 복잡다단한 세계를 기꺼이 감각하려는 사람이다. 힘겹게 잡아챈 감각을 백지 위에 돌을새김하는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한 세계를 고요하고 끈질기게 기록하는 사람에게 가깝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창작 현장은 기대와 설렘만큼이나 긴장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다. 자신 안에 매몰되어서도 외부의 소란에 다만 휩쓸리기만 해서도 안 된다니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이 또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협력과 서울프린스호텔의 후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설가의 방' 사업은 특별하다. '소설가의 방'은 소설가가 세계를 감각하고 기록하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고 단단한 공간이다. 동시에 호텔 유리문을 밀고 나가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언제든 보편의 세계로 스며들 수 있는 도심 속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소설가를 안전하게 감싸 안고 지지하는 동시에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살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곳은 단순한 집필실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24년 하반기 입주를 희망하는 13명의 지원자들은 저마다의 세계와 문장을 가지고 있었다. 심의 과정에서 지원신청서와 작품 활동 내역, 작품집 발간 계획 등을 면밀히 살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단기간인 만큼 확고한 방향성을 가진 합리적 계획에 조금 더 오래 시선이 머물렀다.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자에 대한 가산과 지원자들이 첨부한 작품에 대한 논의가 더해져 심의위원들의 뜻이 순조롭게 모였다. 지원서를 채운 문장에서 배어나오는 신중함과 열의, 작품의 밀도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와닿았기 때문일 것이다. 선정된 분들께 기대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심의위원 일동-